

제35차 콜로키움

제목: 근대성의 변증법과 비판적 이성의 기능 및 가능성

- 위르겐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 이론의 비판적 검토

일시: 1994. 6. 3

강사: 정호근(서울대 강사)

하버마스는 전통적 비판이론에서 비판적 핵심개념이었던 사물화론이 그 내용적 타당성을 완전히 상실하지는 않았으나, 그것을 기술하는 이론적 틀은 견지불가능하다는 인식 하에서 그것을 의사소통행위 이론의 틀로 재정식화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비판이론의 현실태를 조망하고난 후 발표자 정호근은 1) 이론적인 측면에서 사물화이론이 의거했던 이론틀의 문제점을 분명히 하고, 의사소통행위 이론이 재구성하는 사물화이론, 즉 비판의 내용을 검토하고, 2) 비판의 규범적 척도로 제시되는 의사소통적 합리성, 이것의 근거로서 전제되고 있는 의사소통 및 언어 이해가 안고 있는 이론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3) 비판이론의 새로운 모색이란 차원에서 앞으로 전개가능한 비판이론의 연구방향을 시사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발표자가 시사하고 있는 세번째 부분

만을 요약해서 게재한다.

발표자는 비판 내지 비판이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1) 비판의 척도와 결부되어 있던 무제약성의 요구가 포기되어야 하며, 2) 이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비판의 척도의 궁극적 정초의 이념도 포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대적-사회적으로 선여된 보편타당한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형이상학 이후의 시대”의 비판이론은 “이차적 질서의 관찰” 요구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근대성의 조건에서의 비판이론은 더 이상 여타의 이론에 대해 특권을 가진 하나의 특수한 위상을 주창할 수 없고, 자신의 관찰도 다른 관찰과 같은 위상에 위치함을 용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럴 경우 한 이론의 우월성은 그 이론의 관찰의 포괄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경우일 것이다. 위의 두번째와 연관해서 볼 때, 비판이론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대안의 제시는 단순히 이상일 수 없으며, 현실에 내재하는 경향성의 전개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론의 실천적 의미는 현실에 기존하는, 그러나 아직 주도적 움직임으로 결정화되지 않은 경향성에 접목해야 하는 것이다. 비판 이론도 이론인 한에서는 이론의 한계에 굴복한다. 이론이 현실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요, 현실에서 현존하는 가능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비판 이론은 촉매제로 이해될 수 있다.

현대의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회에서는 어느 하부체계도 사회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현대사회는 무중심적이다. 체계이론이 대변하는, 그리고 부분적으로 의

사소통행위 이론도 수용하고 있는 근대사회의 기능적 분화의 입론이 옳다면, 현대사회의 비판이론은 기능적으로 분화된 하부체계의 체계적 합리성에서 그 발단을 찾아야 할 것이다. 체계가 다른 체계를 관찰하여 그 복합성의 차이를 인지하거나, 그 결과로 체계가 자신의 복합성을 통해 자신에 구조적으로 주어진 가능성의 다양성을 동원하여 자신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일 때, 이전에 불가피한 것으로 당연시되거나 옹호되기까지도 했을 불필요한 억압과 지배는 우연적인 것으로 폭로되고 제거될 수 있는 것으로 변질될 것이다. 이런 비판은 현란하지는 않지만 더욱이 실천이 불투명해진 지금, 비판이론 존재의 정당성의 요건으로 충분할 것이다.